

학습동행 우수멘티 참여 수기①

프로그램명	학습동행
<p>① 학사경고를 받은 (혹은 성적이 좋지 않던) 학기의 내 모습은 어땠나요?</p>	<p> 좋지 않은 성적의 원인은 불투명한 목표였습니다. 불투명한 목표는 게으름으로 이어졌고, 게으름은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점점 무로하게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했을 때 대학생이라는 뚜렷한 목표이자 설레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한 후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점에 대한 걱정은 뒤로한 채 설레는 3개월을 보냈지만, 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니 지금껏 들었던 수업들로 내가 얻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우울해졌습니다. 개강을 한 후에도 학과 수업 내용들의 의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성적 다툼을 하는 동기들에 의해 불안감을 느껴 마음을 잡고 펜을 몇 번 잡았지만,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공부에 대한 의심과 불투명한 목표들은 큰 동기를 주지 못 했고 성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일상은 반복됐습니다.</p>
<p>② 학습동행에 참여하며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도움을 얻었나요?</p>	<p> 학습동행에 참여하는 동안 수차례의 팀 모임, 5번의 학습 코칭, 교수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팀 모임을 하면서 팀원들과 공부 습관을 공유하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각자의 꿀팁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이 끝난 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번의 학습 코칭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문제점을 찾고 선생님과 개선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 코칭이라고 해서 단순히 공부 방법에 대한 뚜렷한 피드백이 주어진다는 것보다는 게으른 일상패턴으로 인해 망가졌던 시간관리를 개선시키고 우선순위를 두어 계획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암기를 잘 하는 법,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처럼 ‘나’에 대한 전체적인 마음가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평소에 찾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의의를 취업에 국한된 의의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③ 학습동행 프로그램과 함께 노력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p>	<p> 학습동행 프로그램은 멘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의미있는 활동으로 남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학습코칭을 받고, 학습코칭 일지를 작성하고, 팀원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자기성장보고서를 작성해야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가’가 관건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있게 생각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만 했고 과연 이 코칭들이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할만큼 의미있는 시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학습코칭과 팀 모임 시간을</p>

	<p>보내고 나니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무료하고 게을렀던 대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점점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뒤로 학습코칭 선생님들을 만나 한 주의 일상을 말씀드리는 것도, 새로운 코칭을 받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생각보다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p>
<p>④ 학습동행과 함께 성공한 이번 학기 나는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은 어떠한가요?</p>	<p>가장 달라진 점은 학교 수업과 학점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학습동행을 처음 시작한 이유는 드라마틱한 학점의 상승을 바란 것이 아닌 목표를 찾고 공부에 대한 의의를 찾고 싶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뚜렷한 목표를 찾진 않았지만, ‘잘 놀면서 학점도 잘 챙기는 멋있는 대학생’이라는 생각보다 행복한 목표를 찾았고, 공부를 단순히 단순히 자기개발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했던 과목을 공부한다는 고등학교의 순수했던 내 감정에 대한 예의’라고 의의를 두며 의욕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지각과 결석이 현저히 줄었고, 시험기간에 세우지 않았던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내가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여기저기 찾아가서 공부해보는 노력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각과 결석의 횟수를 0으로 만들어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학기를 보낼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많이 수행하되, 다 수행하지 못했다는 압박감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순위의 상위권에는 늘 복습이 존재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내가 듣는 수업에서 한 번쯤은 강의실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다짐이 되었습니다.</p>
<p>⑤ 내가 멘토(Mentor)가 된다면, 멘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싶은가요?</p>	<p>내가 멘토가 된다면 멘티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말들을 많이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학업에 자신감을 잃은 학우들은 한 번쯤은 ‘나는 공부를 못 해.’, ‘저 교수님은 나를 싫어하실거야.’ 혹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무조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멘티들도 한 때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그 때의 치열함을 반의 반만이라도 닮아도 성적은 오른다.’는 말, ‘생각보다 교수님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갑자기 의욕을 가지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원래 학점이 높았던 학생들보다 더 사랑스러워하신다.’는 말. 그리고 ‘졸업은 무조건 한다.’는 등의 말들을 해주며 안심과 함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멘티들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멘티의 입장에서, 내가 멘티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의 시절을 떠올리며 진심을 다해서 대답해주고 싶습니다.</p>
<p>추천합니다!</p>	<p>▪ 구체적으로 어떤 학우들에게 학습동행을 추천하고 싶은가요? 학업에 의욕이 없는 학우, 미래에 대해 조급함을 느끼는 학우</p> <p>▪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학사경고를 받았던 이유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의욕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됐던 나만의 동기를 만들어서 없던 의욕을 되살리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성적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필욘 없다는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p>